

## 10장 제사장의 직무와 응식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여호와와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고 백성이 그 앞에 엎디어 절을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게 하셨다(10:10).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고서 속죄제 희생의 고기를 먹지 않고 태운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 1.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10:1-7)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죽었다.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하였고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도록 해야 하였다(참조 16:12).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지성소에서 불을 내보내어 그들을 사르셨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자 그들은 즉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제사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길을 열어주셨다.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원칙을 선언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자 아론은 잠잠하였다. 모세는 죽은 자의 장례는 다른 사람이 아론의 작은아버지인 웃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담당하게 하였다(참조. 출 6:18, 20).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이 사촌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고 말하였다. ‘성소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한 유향에 불을 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향을 태우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호와와의 치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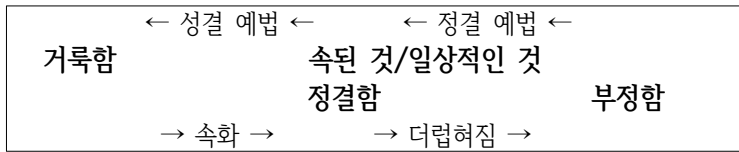
모세는 또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들과 형제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 대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명령을 어기면 그들도 죽을 것이었다(10:6, 7). 그분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온 제사장을 불로 소멸하시는 분이시다(신 4:24; 히 12:29). 이렇게 죽음의 경고가 붙은 명령을 내리시고 그 이유로 여호와와의 기쁨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관유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죽은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참조. 레 21:10).

### 2. 제사장의 직무 (10:8-11)

제사장에게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였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사망을 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다.

제사장의 직무를 두 가지로 가르친다. 첫째,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삼상 21:5-6; 겔 22:26; 42:20; 44:23; 48:15).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가리켜서 ‘속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된 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항용(항)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코데시) 떡은 있나니**”(삼상 21:4) 하고 말하였는데, ‘거룩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일상적인 것’[속된 것]이었다. ‘일상적인 것’은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뉜다. 이 관계는 서로 연결된다. 부정한 것은 정결 예법을 통해서 정결한 것이 되며, 정결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짐으로써 거룩한 것이 된다.

## <거룩함과 정결과 부정의 관계>



이렇게 ‘거룩함-정결함-부정함’의 세 범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는 사회 구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있는 성막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진(陣)은 정결하지만 그 진 밖은 부정한 세계이다. 따라서 문둥병에 걸린 자는 이스라엘 진 밖에 거하게 하셨지만 병이 나았을 때에는 결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7일 후에 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 후에야 완전히 정결하다고 선언되었다. 제사장으로서의 부정한 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죽음을 면해야 할 중대한 책임도 지고 있었다(15:31).

거룩함과 정결함과 부정함의 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이르도록 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상태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구분은 레위기 11-16장에 나오는 정결 법전과 17-27장의 성결 법전과 연결된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신 이 말씀은 레위기의 구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례를 가르쳐야 하였다.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게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민족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바르게 드릴 수 있었다. 따라서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는 여호와의 사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였다(말 2:4-7; 신 17:9-11; 31:9-13; 33:10; 대하 15:3; 17:7-9; 렘 18:18; 호 4:6; 학 2:11).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신 33:10)고 이야기하였다. 바른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 율법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을 하면서 액땀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교적이고 거짓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다(삼상 15:22-23).

### 3. 제사장의 응식 (10:12-15)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에서 소제의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으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곧 성막 안에서 먹어야 하였다.

화목제의 응식으로 주신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뒷다리는 제사장의 가족이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다. ‘거룩한 곳’과 ‘정결한 곳’의 구분은 거룩함에 등급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슴과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눈 것이다.

### 4. 속죄제의 응식을 먹지 않아 책망을 받음 (10:16-20)

속죄제에는 응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응식이 없다 태웠지만(4:3-21), 다른 경우에는 속죄제의 제사 후에 남은 고기도 제사장에게 응식으로 주었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다.

모세가 속죄제의 응식을 찾았으나 아론의 두 아들이 불살라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모세가 분노하자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대답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대답을 선하게 여기고 받아 주었다.

## 묵상과 실천: 제사장의 직무 수행

제사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백성을 여호와와 거룩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민족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 중대한 일이었다. 그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물을 사른 불과 동일한 불이 그들을 살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첫 번 제사에서 큰 원칙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신약의 교회 출범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신을 속였을 때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과 비슷하다.

둘째,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야 하였다.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할 때에 그 위치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사 규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와 무게가 같았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릇 행하면 회중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 주신 것이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종교적인 언사가 화려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그러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 중보자직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완성된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보의 사역을 친히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따라서 말씀의 봉사자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맛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 10장 익힘 문제

1. 번제단의 불은 항상 어떻게 유지하라고 하셨습니까? (69/12/13)
2. 1)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은 향로에 담아 분향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절)  
2)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3. 아론의 아저비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4절)
4.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보다 무엇으로 인하여 더 슬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6절)
5. 1)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모세는 그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어디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까? (7절)  
2) 그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7절)
6. 아론과 그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을 금하라고 하셨습니까? (9절)
7.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행해야 할 직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0-11절)
8. 거룩한 곳에서 먹는 대신에 불살라서 모세에게 책망을 받은 제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0:16-20)